

<2014년 5월 21일 수요일말씀>

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봉과 비밀은 ‘쫄개기’다

본 문 창세기 15장 9-11절

할렐루야!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진실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‘성부 하나님의 사랑’과 ‘성자의 평강’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이번 주 주일에는 『네 육과 혼과 영을 ‘빛나는 보석’으로 만들어라.』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.

먼저 <주일말씀의 핵심>을 짚어 주면서, 이어서 <오늘 말씀>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의 주제는 『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봉과 비밀은 ‘쫄개기’다.』이며, 말씀의 핵심은 ‘쫄개는 것’입니다.

말씀을 들을 때,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<마음>과 <생각>과 <삶>에서 ‘선과 악’이 쫄개지고, ‘의와 불의’가 쫄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* <다이아몬드 원석>도 귀하지만, 그 자체로는 <비싼 보석>이 될 수 없습니다.

가장 먼저 ‘원석’을 싸고 있는 ‘잡석’을 다 쪼개 내어 제거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그 ‘원석’을 다시 쪼개어 기본적으로 58면으로 깎아 내어 연마하고 가공해야 됩니다. 그래야 각 면이 서로 마주 보면서 빛을 ‘반사’시키고 ‘확산’시키고 ‘통과’시키며 빛을 내게 됩니다. 그제야 비로소 <값비싼 보석>이 됩니다.

* <금>도 처음에는 ‘잡석, 잡철, 은’이 섞여 있습니다. 그 상태로는 <순금 보석>이 아닙니다.

가장 먼저 ‘잡석’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용광로에 녹여서 ‘은과 잡철’을 쪼개 낸 뒤에, 그 금을 가지고 ‘목걸이, 반지, 각종 것들’로 가공합니다. 그제야 ‘빛나는 금 보석’이 됩니다. <끝>

<다이아몬드>도 <금>도 ‘보석’으로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, ‘잡석, 잡철을 쪼개 내고 제거하는 것’입니다.

<자기 인생>을 만들고, <휴거의 영>으로 만드는 것도 그러합니다.

자기 ‘육, 혼, 영’ 그 자체는 <다이아몬드 원석>과 같고 <돌에 묻혀 있는 금>과 같습니다.

자기를 만들기 전에,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

자기 <마음과 생각>에는 ‘선과 악’이 섞여 있으니, 가장 먼저 ‘악’을 쪼개 내야 됩니다.

<성자가 시대 구원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>을 듣고, 자기 마음속의 ‘죄, 어둠에 속한 마음, 악, 불의’ 를 쪼개 내야 됩니다.

이것이 자기를 만들기 전에,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.

- 가장 먼저 ‘자기 모순, 나쁜 성격, 잘못된 체질과 습관, 불의, 죄, 악’ 등을 다 쪼개 내고 제거해야 <마음>이 온전해져 <행실>도 온전해집니다.

- 그 상태에서 ‘말씀, 사랑, 기도, 찬양, 관리, 전도, 성자와 주와의 교통, 증거, 온전한 생각과 행실, 간증’ 등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<하나님의 뜻>대로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.

- 그래야 찬란하게 빛나는 <인간 보석>이 되고, ‘혼과 영’ 도 찬란한 빛을 내며 <휴거의 영 보석>으로 변화됩니다. (믿습니까?)

<잠시 쉬었다가>

자기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‘**쪼개는 것**’ 입니다.

무엇을 쪼갰다고요?

‘자기 모순, 나쁜 성격과 체질, 악, 죄, 불의 쪼개 내기.’ 입니다.

정말 쪼개서 해야 됩니다.

이것이 ‘큰 비밀’ 이고, ‘큰 능력’ 입니다.

‘잡석, 잡철’ 을 쪼개 내지 않으면, 어느 누구도 <순금>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. 이와 같이 ‘자기 모순, 나쁜 성격과 체질, 악, 죄, 불

의’를 쪼개 내지 않으면,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안 받아 주십니다.

<전환>

사람은 <학문의 교육>보다 <인생의 교육>을 받아야 됩니다.

<학문>은 ‘육신이 쓰는 것’에 대해 배우는 것이고, <인생>은 그 위에 있는 ‘인생’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.

<인생>을 배워야 ‘자기 인생길’을 찾고 제대로 살게 됩니다.

<학문>을 다 배웠어도 <인생> 못 배우면, ‘자기 인생길’을 못 찾아 제대로 못 살게 됩니다.

차를 운전하는 자가 ‘도로교통법’에 대해 배우는 것은 <지식과 학문>을 배우는 것이라면, ‘운전하는 법’을 배우는 것은 <인생>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.

차를 가진 자가 ‘도로’를 잘 몰라도 ‘운전’할 줄 알면, 운전하면서 묻고 배우면서 가도 됩니다. 먼저는 ‘차를 작동하는 법, 운전하는 법, 고장 난 것을 고치는 법’ 등을 배워야 됩니다.

인생도 그와 같습니다. 먼저 <인생>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.

<학문>을 배워도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<학문>으로는 ‘인생길’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. 만일 <학문>을 배운 것처럼 <인생>을 배웠다면 다 성공했을 것입니다.

<학문>은 90%를 배우고 <인생>은 10%만 배우고 사니, <인생>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, 그러므로 ‘인생길’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곤고하

게 사는 것입니다.

<학문>은 40% 정도 배우고, <인생>을 60% 정도 배워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<인생의 인봉>, <인생의 비밀>은 ‘쫄개기’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‘선과 악’을 쫄개고, ‘육, 혼, 영’을 쫄개고 ‘본체와 분체’를 쫄개고, ‘하늘과 땅’을 쫄개서 보면, <성경의 인봉된 말씀>과 <비밀>이 다 풀립니다. <끝>

* 지금부터 ‘쫄개는 것’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씩 <영상>을 보여 주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가령 <금>과 <은>을 섞어서 ‘반지’를 만들었다고 해요. 겉으로 보면 전체가 <금>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용광로에 녹여서 분석해 보면, <금>은 몇 돈인지, <은>은 몇 돈인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.

고로 <비밀>은... ‘쫄개기’입니다. <끝>

* 또 <영상>을 보여 주면서,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<성자>와 <예수님>도 쫄개서 봐야 됩니다.

<예수님>을 ‘창조자, 전능자 삼위일체’로 생각하지만, 쪼개면 <본체 성자>와 <분체 예수님>으로 나뉩니다.

쪼개면, <성자>는 ‘삼위일체 중의 한 분’으로서 ‘구원’을 담당하는 전능자이며, ‘절대 신으로서 본체’ 이십니다.

<예수님>은 ‘성자가 보낸 자’로서 ‘성자의 육’이며, ‘육신을 가진 사람’으로서 ‘땅의 메시아’입니다. <예수님>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은 ‘절대 신, 본체’가 아닙니다.

이 시대도 이와 같이 <성자>와 <분체>를 쪼개서 봐야 됩니다. <끝>

* 또 <영상>을 보여 주면서,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<선인>과 <악인>이 한자리에 같이 있으면, 모르는 사람들은 둘 다 <선인>으로 보든지, 둘 다 <악인>으로 봅니다.

쪼개면, 한 사람은 <선인>으로 보이고, 다른 한 사람은 <악인>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 <선인>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. <끝>

* 또 <영상>을 보여 주면서,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모든 종교도 그냥 보면, ‘똑같은 종교’ 같습니다.

그러나 쪼개서 보면, 구원이 없는 <우상 종교와 이단 종교>, 그리고 구원이 있는 <하나님의 역사>로 나뉩니다.

(* 잠시 쉬었다가)

또,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<구약 종교> - <신약 종교> - <성약 종교>는 표가 나게 다릅니다. 고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.

<구약>은 ‘모세의 율법’을 믿고 따르는 종교로서 ‘종급 구원역사’입니다.

<신약>은 ‘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전하는 말씀’을 믿고 따르는 종교로서 ‘자녀급 구원역사’입니다.

<성약>은 ‘성자가 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’을 믿고 따르는 종교로서 ‘신부급 구원역사’입니다.

(* 잠시 쉬었다가)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쪼개서 대하고 역사하십니다.

- <구약 - 신약 - 성약>을 쪼개서, 각각 ‘종 - 자녀 - 신부’로 대하며 역사하십니다.

- 각 사람을 대하실 때도 쪼개서 대하고 역사하십니다.

고로 자기 안에서 ‘죄, 불의 악, 모순’을 다 쪼개 내야 됩니다. 그 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<양>으로 대해 주시고, <신부>로 대해 주시며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시고,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, 투자하십니다.

<끝>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모든 인생’들을 그 <생각과 행위>에 따라 쪼개서 대하시니, 공의롭고 전지전능하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이제 ‘쫄개는 것’ 에 대해서 이해했지요?

‘쫄개는 것’ 이 <큰 비밀>이고 <큰 능력>입니다.

‘쫄개는 것’ 이 <인생의 인봉>이며 <인생의 비밀>입니다.

자기를 만들기 전에 **가장 먼저 할 일은** ‘자기 모순, 나쁜 성격과 체질, 악, 죄, 불의 쫄개 내기.’ 입니다.

정말 쫄개서 해야 됩니다.

이것이 ‘큰 비밀’ 이고, ‘큰 능력’ 입니다.

<전환>

어떤 일을 할 때도 <장점과 단점>, <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>을 쫄개서 안 보고 하면, 해를 받고, 화를 당하고,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.

사람을 대할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, 잘 모르는 사람, 오래된 사람, 수료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, 새로 온 사람을 쫄개서 대해 주고, 쫄개서 말해 주고, 쫄개서 가르쳐 주고, 쫄개서 사랑해 주고, 쫄개서 투자해야 됩니다.

쫄개서 말하지 않으면 ‘적’ 이 생기고, ‘손해’ 가 되고, ‘문제’ 가 일어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<음식>도 쫄개서 먹어야 됩니다.

‘껍질’을 쪼개 내고, ‘칼’로 잘라서 쪼개고, ‘입’에 넣어서 이로 잘게 쪼개서 삼켜야 됩니다. 그리고 ‘위’에서 다시 쪼개어 ‘장’으로 보냅니다. ‘장’에서 각 지체와 세포에 영양분을 보냅니다.

이와 같이 사람은 ‘쪼개는 역사’로 존재합니다. <끝>

<인생>도 쪼개야 제대로 존재합니다.

쪼개야 <자기>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<휴거>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. 먼저 ‘죄, 악, 불의, 모순’을 쪼개 내야 성자와 일체 되어, 더욱 성자의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 ‘휴거의 영’으로 만드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.

알아야 제대로 쪼갤 수 있습니다.

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쪼개 낼 수 있습니다.

먼저 ‘자기 성격, 자기 모순, 자기 죄’를 시인해야, 회개하고 자꾸 고치면서 쪼개 낼 수 있습니다.

사람도 각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쪼갤 수 있습니다. 각 사람들을 잘 파악하여 쪼개서 가르치고, 쪼개서 사명도 줘야 됩니다.

<전환>

- <참포도나무와 돌포도나무>도 쪼개서 키우다가 접붙여야 됩니다.

<사람>도 그와 같습니다.

- <돌조각>을 할 때도 먼저 작가가 어떤 형으로 조각할지 구상하고,

돌을 쪼개 내어 걸작으로 만듭니다.

<사람>도 그러하고 <섭리사>도 그러합니다.

- <글 교정>도 하나의 쪼개 내는 역사입니다. 잘못된 글씨와 문장을 쪼개 내어 매끄럽게 만들어야 글 전체가 빛이 납니다.

- <자기 모순>도 자꾸 쪼개 내야 됩니다.

<자기 죄>도 자꾸 쪼개 내야 됩니다.

<마음속의 악과 불의>도 자꾸 쪼개 내야 됩니다.

<어둠에 속한 마음>도 자꾸 쪼개 내야 됩니다.

자꾸 쪼개 내야 자기 욕, 혼, 영이 황금 덩이가 되어 빛이 납니다.

- <말씀을 전할 때>도 자기가 어떻게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고, ‘모순된 말씀’을 즉시즉시 쪼개 내서 온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. 그래야 듣는 자들이 믿고 따르고, 사탄도 조건을 안 붙입니다. 그리함으로 ‘말씀으로 인해 깨닫는 역사’가 일어납니다.

- 교역자들은 <설교할 때>에 ‘자기 모순과 자기 부족’을 빨리 쪼개 내야 됩니다. 그래야 <설교>가 빛나서 청중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, 은혜를 받고 행하여 욕과 혼과 영이 변화됩니다.

- <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>도 쪼개서 해야 일이 잘 풀어지고 해결됩니다.

- <일을 할 때>도 쪼개서 해야 잘됩니다.

나무도 쪼갤 때 ‘잘 쪼개지는 결’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도끼로 쪼갭니다. ‘결’은 ‘하나의 길’입니다. <어떤 좋은 것을 두고 행할

때>도 ‘길’을 잘 보고 쪼개서 해야 됩니다.

- <남자와 여자>도 쪼개 놓으면, 이성 문제가 안 생깁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하나님은 <인간>이 쪼개져서 존재하도록 쪼개서 구상하고 창조하셨습니다.

<육>, <마음>, <혼>, <영>을 쪼개서 창조하셨습니다.

<인간의 육신>도 뼈마디마다 그 길이를 ‘한 뼘, 두 뼘, 세 뼘으로 나누어, 쪼개져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. ‘위, 장, 심장, 폐’ 등 내장의 각 기관도 쪼개서 그 위치에 각각 존재하게 하셨습니다.

(* 잠시 쉬었다가)

<천국 세계>도 ‘차원’대로 쪼개져서 존재합니다. ‘구약권 천국 - 신약권 천국 - 성약권 천국’이 쪼개져서 존재하고, <성약권 신부급 천국>에서도 ‘차원’대로 쪼개져서 존재합니다. 최고 높은 곳은 <황금성>입니다.

<천국>은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영을 만든 그 차원대로 가게 되는데, ‘차원’대로 쪼개지 않으면, 서로 안 맞아서 피차 고통입니다. 고로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쪼개져서 존재합니다.

<지옥 세계>도 ‘차원’대로 쪼개져서 자기 육이 행했던 대로 그 영이 형벌을 받고 삽니다. <끝>

하나님은 만물이나, 인간이나, 영계나, 모든 존재물을 쪼개서 창조하셨습니다. 고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. 그래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쪼개서 대하고 쪼개서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야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.

<전환>

*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쪼갤 것을 안 쪼개고 드리면, 안 받으십니다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쪼개지 않고 드리니, 받지 않으셨습니다.

<우리 몸>도 하나님께 드리는 ‘신령한 제물’입니다. 고로 ‘자기 모순, 죄, 악, 불의’를 쪼개고 드러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.

<가치 있는 것>과 <가치 없는 것>을 쪼개 놓지 않으면, <가치 있는 것>도 <가치 없는 것> 취급을 받게 됩니다. 고로 꼭 쪼개야 됩니다.

도끼로 나무 쪼개듯, 자기에게서 ‘사탄’을 쪼개 내야 됩니다.

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, 성자와 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있어서 쪼개야 될 것을 쪼개 내야만 <구원>받고, 더 나아가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 <휴거>될 수 있습니다. (믿습니까?)

무거운 짐을 들 때도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들면 무거워서 못 끌고 갑니다.

쪼개지 않고서 하면 <자기 인생>도 무거워서 못 끌고 가고, <생명들>도 무거워서 못 끌고 가고, <일>도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합니다.

자기에게서 ‘모순, 죄, 악, 불의’ 를 쪼개 내지 않고 ‘사탄’ 을 쪼개 내지 않으면, 자기를 만들어서 <휴거 300선>까지 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감당을 못 합니다.

* 오늘은 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, 자기를 휴거시키는 데 있어서,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<인봉>이며 <비밀>인 ‘쪼개기’ 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 말씀 마쳤습니다.